해양포유동물의 위기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대교수 · 법박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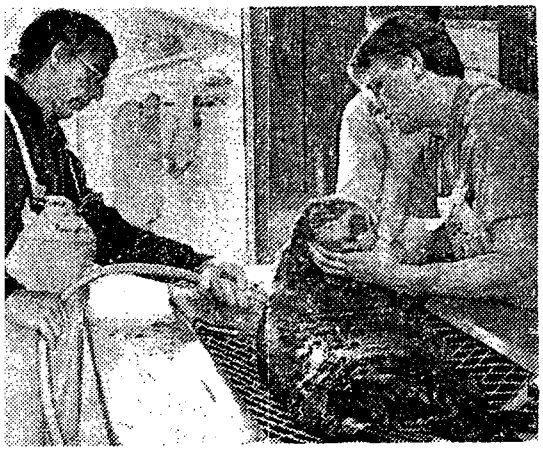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동물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남획에 시달려왔다. 지구의 많은 생물 중 멸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종자의 많은 부분이 해양표유동물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고래를 식용으로 포획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양환경은 갈수록 오염되어서 이제 고래를 위시한 대부분의 해양포유동물을 멸종의 마지막 벼랑으로 몰아 세우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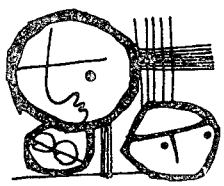
1988년은 해양포유동물의 집단사망으로 얼룩졌다. 캘리포니아의 산타-바바라 해역에서는 바다강치("sea lion")가 급작스런 발작을 일으키는 질병에 걸린것이 확인되었는데 네마리 중 한마리는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사체해부의 결과 이들의 몸에서는 평균치의 10배가 넘는 납, 크롬, 구리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카나다의 대서양쪽의 센트-로렌스강의 하류에는 흰돌고래("Beluga Whale")가 매년 수십마리씩 죽어서 해변에 밀려 오고 있는데 이들의 사체에서는 PCB, DDT 그리고 수은등이 검출되었으며, 사체해부의 결과 이들이 각종 종양, 암, 궤양 그리고 혈액질병에 걸려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1988년 한해동안 서유럽 해안에서만 약 11, 000

가리의 바다표범(seal)이 죽어서 해변으로 밀려왔는데 특히 북해에서는 전체 서식 바다표범의 50% 이상이 죽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알래스카의 사상최대 원유유출사고로 인해 기름투성이가 된 바다표범을 씻기고 있는 시에라 클럽회원들.

산업폐수로부터 유래된 것이 분명한 중금속에 의한 사망 이외에도 또한 우려되는것은 해양포유동물의 체내면역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가 오염됨에 따라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바다표범을 몰살시키고 있는것이 밝혀졌는데 빠른시일내에 백신을 발명하여 해안지역에 풀어주지않는 한 여러종류의 바이러스는 해양포유류는 말할것도 없고 인간의 해양단백질의 원천인 어족자원도 위협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Ⅲ

해양포유동물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나 이제는 인간이 해양포유동물을 남획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려해도 더이상 손쓸수없는 단계가 된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마져 대두되고 있다. 바다에서 가장 진화된 해양포유동물이 오염된 환경에 가장 취약한 탓으로 제일먼저 멸종되어간다면 지상에서 가장진화된 인간을 포함한 육상포유동물의 멸종도 결코 먼 이야기만은 아닐것이다.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동물의 운명에 우리가 결코 모르는체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더구나 인간이야말로 가해자이고 해양포유동물은 1차적인피해자인 것인데, 다음에는 가해자인 인류가 바로 피해자가 되지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속절없이 죽어가는 해양포유동물의 최후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의 후손의 모습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